1998. 9. 15 창간

춘천 성시

vol.198

5

2015



특집1 | 이유있는 이혼 사연있는 재혼

특집2 | 단절을 넘어 사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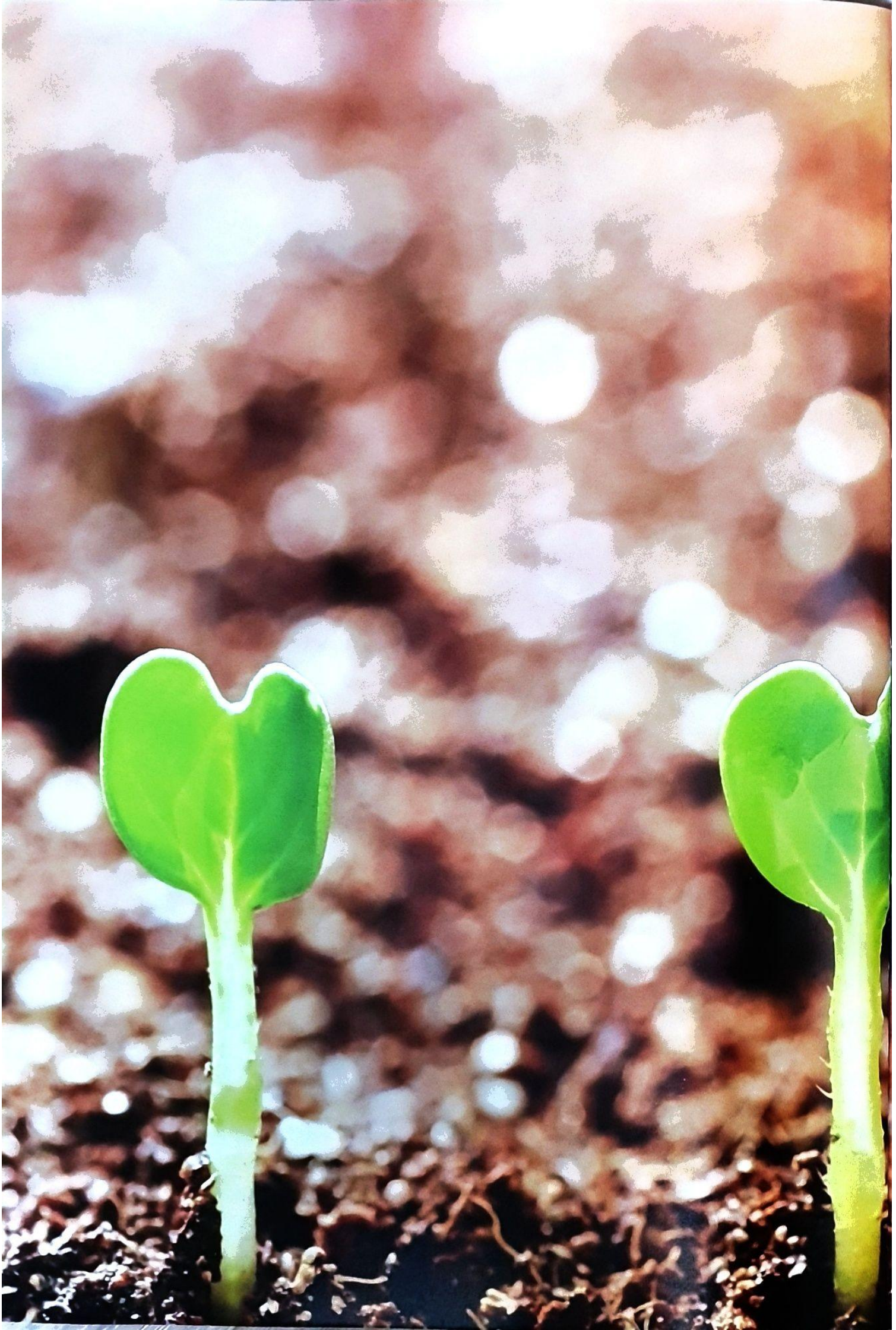
특집3 | 가사 소년 재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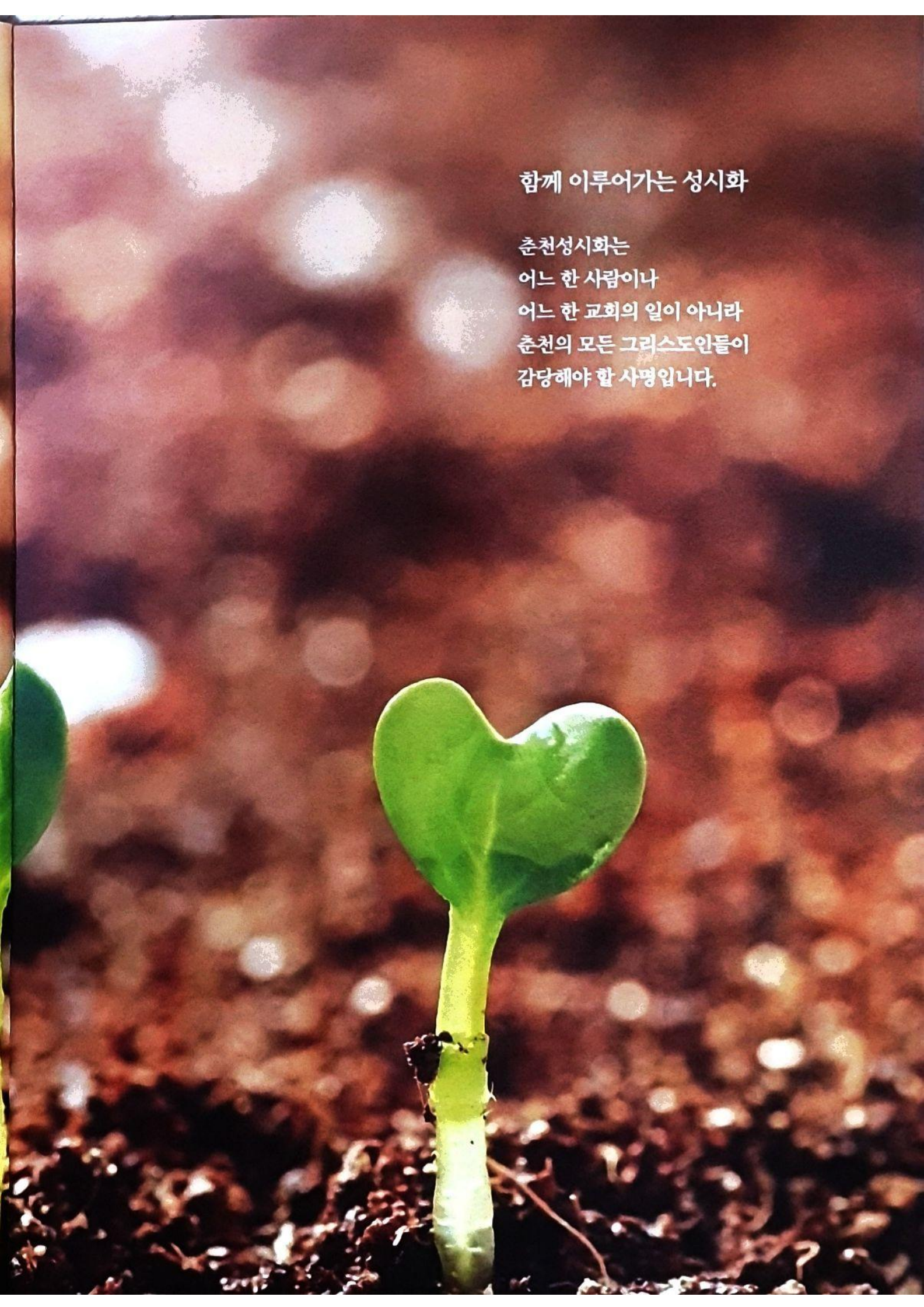
통 일 | 통일컨퍼런스

선 교 | 이슬람

기 관 | 강원대 교수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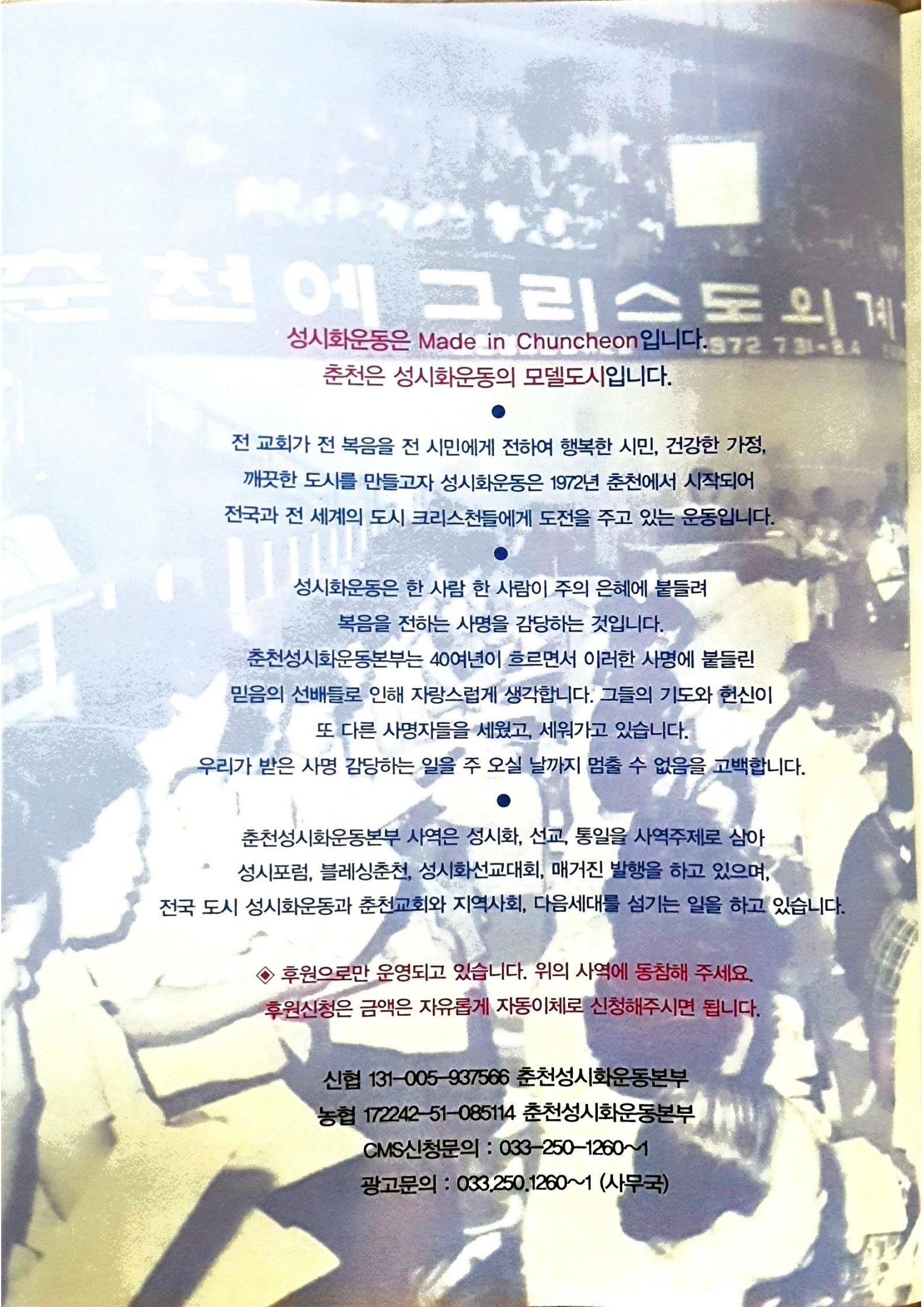
[illegible] 시민에게 [illegible] 행복한 시민, [illegible] 깨끗한 도시 [illegible] 만드는 [illegible] 사회운동 [illegible]





함께 이루어가는 성시화

춘천성시화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춘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성시화운동은 Made in Chuncheon입니다.
춘천은 성시화운동의 모델도시입니다.

●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성시화운동은 1972년 춘천에서 시작되어
전국과 전 세계의 도시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운동입니다.

●

성시화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에 붙들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40여년이 흐르면서 이러한 사명에 붙들린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또 다른 사명자들을 세웠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감당하는 일을 주 오실 날까지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역은 성시화, 선교, 통일을 사역주제로 삼아
성시포럼, 블레싱춘천, 성시화선교대회, 매거진 발행을 하고 있으며,
전국 도시 성시화운동과 춘천교회와 지역사회, 다음세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후원신청은 금액은 자유롭게 자동이체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농협 172242-51-085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MS신청문의 : 033-250-1260~1
광고문의 : 033.250.1260~1 (사무국)

Editor's Letter

가정의 위기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위기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 더욱이 가정의 위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윤리성과 도덕성의 타락은 놀라운 속도를 보이고 있다. 불명예스럽게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이혼율 1위이며 해마다 그 증가율 추세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해체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 이른바 위기 가정에서 위기 자녀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세상적인 흐름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다. 과거에는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말 자체가 드러내 놓기 어려운 주제였다. 그러나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이혼한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한 힐링적 목회가 필요하게 될 정도로 교회 안에서도 이혼한 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교회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여러 가지로 가정이 함께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한다. 너 나 할 것 없이 가정 회복을 외치지만, 구호나 외침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강조하여 '음행한 이유가 아니면 아내를 버리지 말라' 고 '이혼 금지' 를 강조하면 성도들의 삶의 정황과 동떨어진 소리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여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다보면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살게 할 것이기에 더욱 고민하게 된다. 이뿐 아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도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암송시키는 일이 사라지고 있다. 그 빈자리에 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프로그램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더욱이 점점 어린이예배나 청소년 예배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신실한 교회들이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공동체와 교회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특히 가정을 통해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도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기초공동체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 더 나아가 이웃과 지역과 나라를 위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나가는 일이야말로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귀한 일이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우선 가정을 세우려는 청년들로부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한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등.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다. 무면허운전자가 가정을 운전한다고 할 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위기 가정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자! 넘어지는 가정을 구조하자!

편집장 **최영조**

차마 드리지 못하는 말

강원 CBS
아나운서 정예현

'어머니가 마치 개구리처럼 오그라 붙으시고 노망이 들으셔도 어머니를 목욕시키고
어머니의 시든 젖을 빨면서 지난 일들을 함께 얘기하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는 작가 최인호씨의 자전적 소설은 온통 참회 투성이입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좀 더 극진히 모시지 못했을까 하는
회한이 밀려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샘처럼 마르지 않았던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닫고,
좀체 내색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어렴풋이 떠올리면서
세상 모든 자녀들이 모두 불효자가 돼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변치 않는 강물처럼 때론 울창한 숲처럼 늘 거기에 있는 부모이건만,
사소한 일에도 툭하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렸고
지금은 자녀들에게 사랑만 베풀 줄만 알았지
연세 드신 부모님께는 기껏 돈이나 선물로 효를 사려 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따로 날을 정해 호들갑을 떨다가도
어버이날만 지나면 안부전화도 드리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울 한쪽에 세계를, 다른 한쪽에 어머니를 놓고 달아 본다면
지구의 무게가 훨씬 가벼울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도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신 부모님께는
효도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옥이야 금이야 키우시고 자식 걱정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신
우리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식사대접 한 끼로, 얼마 안 되는 용돈으로 모든 것을 다했다고 말하는
이 자식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 말도 차마 드리지 못하는 불효자식입니다.

"정예현의 프로포즈" 진행
(월~토, 낮12시~1시30분)

Contents

May 2015 vol.198

Editor Letter 003

칼럼 004







※ 표지그림 재능기부 : 유명애 수채화가
(작품명 : 들장미)

006 **캘린더** May 2015

008 **특집1** 이유있는 이혼 사연있는 재혼

011 **시** 작은 손가방

012 **특집2** 단절을 넘어 사랑으로

014 **특집3** 가사 소년 재판에서

017 **예수안에서 본 예술** 박신호

018 **특집4** 가정위탁제도

021 **성시** 춘천성시화운동과 평화

024 **통일** 통일컨퍼런스

027 **선교** 이슬람

032 **기획** 영국교회가 한국교회에게 주는 경고

034 **다음세대** 통일세대를 세우라

037 **만평/예향**

038 **기관** 강원대 기독교수선교회

041 **음악산책** 슈베르트의 들장미

042 **시사** 바보들의 천국

044 **가정** 부부의 제일덕목

046 **설교** 가정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048 **영화이야기 95** 언브로큰

050 **예수의 미소** 아침예찬

052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054 **4월을 돌아보며**

창간 1998. 9 .15 |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지용찬,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 **편집위원** 김춘배, 성낙환, 안세현, 이관형,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주소**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화 T) 033.256.1260~1 F) 033.257.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 **Design** 로딘어스

2015 5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 이달의 기도제목 」

♥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역사를 주소서. 가정마다 회복되어 영적유산을 잘 이어가게 하소서.

♥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에 이르기까지 진리로 세워진 올바른 가치관이 가르쳐지게 하소서.

♥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예수의 복음을 성령으로 분명하게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땅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년의 날을 주사 꿈꾸는 것 같은 회복의 역사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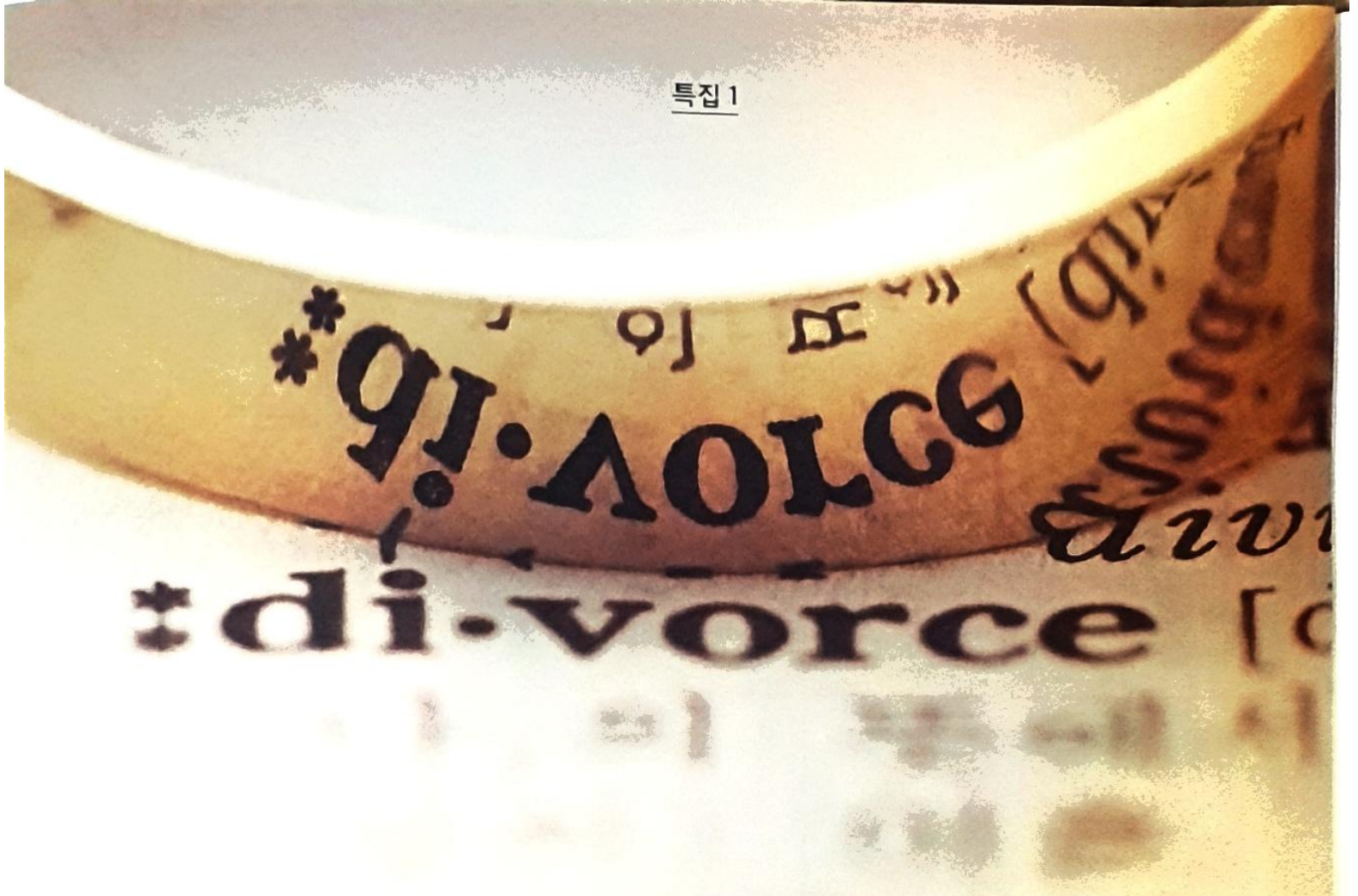
SUNDAY	MONDAY	TUESDAY
3	**4** [IVF] ~8 통일기도주간 [인터콥] 비전스쿨 저녁 7시, 효신교회	**5** [CCC] 어린이날 전도행사 9-6시 춘천교대 운동장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 저녁 7시, 동부교회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 저녁 4시 주항교회
10	**11**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40차 저녁 7시, 주항교회 [인터콥] 비전스쿨, 월드미션 저녁 7시, 효신교회	**12** 춘천기관장 모임 저녁 7시, 세종호텔 [CCC] 드림워십과 함께 여름수련회의 밤 저녁 7시, CCC센터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 저녁 4시 주항교회
17 [기드온] 앙구감리교회 순방	**18** [인터콥] 비전스쿨 저녁 7시, 효신교회	**19**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 저녁 7시, 동부교회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 저녁 4시 주항교회
24 [기드온] 철원감리교회 순방	**25** [인터콥] 비전스쿨 저녁 7시, 효신교회 [예스컵] 청소년 연합 체육 대회 [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 하천무대	**26** [기독교선교단체연합] 음악과 감언의 밤 저녁 7시, 강원대 백령아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 저녁 7시, 동부교회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 저녁 4시 주항교회

위하여 울라 "　　누가복음 23장 28절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성시본부] 조찬이사회 오전 7시, 라뜰리에 [JDM] TTS 수련회 삼천리 기도원	**2**
캠퍼스사역위원회 IVF회관	**7**	**8**	**9** "통일세대를 세우라!" 오후 2시, 주향교회 변수연강사
본부] 2시, 매거진 편집회의	**14**	**15**	**16** [에스컵] 프레이즈 춘천 저녁 7시, 중앙성결교회 드림홀
요터콥] ~22일 회 국제컨퍼런스 로벌 얼라이언스(GA) J 열방센터	**21** [JDM] 한국제자훈련원 25기 단기 수료식 저녁7시30분, JDM훈련센터	**22** [IVF] ~23 강원연합수련회 1차조장모임, 원주 MF회관 [인터콥] 2차 비전캠프 BTJ 열방센터	**23**
	28	**29**	**30**

♥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이유있는이혼 사연있는재혼

글 /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오늘날 현대의 가정들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이혼과 재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형국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은 많다. 성경적 가치관의 약화와 시대적 풍조가 가장 큰 주범이다. 범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유명인들에게 들려오는 이혼, 재혼, 다혼의 소식은 간접적으로 이러한 풍조를 조장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결혼제도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한 몸이 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결혼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초기교회의 경우만 해도 이혼과 재혼에 관해 불가(不可)라는 한 단일화된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혼과 재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할까? 현실적인 차원이 아니라 먼저 성경적인 입장을 검토함이 옳다. 다만 그 이후에 나름대로의 이유 있는 이혼과 사연 있는 재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성경은 이혼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이다

마태복음19: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혼과 재혼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입장을 볼 수 있다.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 의하면 결혼은 인간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엄숙한 제도이며, 하나님은 한 몸이 된 두 사람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셨다. 따라서 이혼은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다만 부분적으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혼을 인정하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혼 그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으셨지만,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뜻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마가복음 10장 11절 이하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11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12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누구든지 함부로 이혼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함부로 재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불가피한 이혼이나 재혼의 가능성은?

초기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혼과 재혼에 관해 예수님의 입장을 따랐다. 그렇다고 당시 초기 교부들이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신학적인 차원에서 폭넓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그들은 관련 성구들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했을 뿐이었다. 동방 교회와 서방교회를 막론하고 당시의 교회들은 불가피한 이혼을 인정하되 배우자의 간음에만 국한하였고, 재혼은 엄격히 금지했다고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예수님은 불가피한 이혼과 재혼의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고 있다. 불가피한 상황이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 9절 이하를 보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유 외에'란 무엇인가?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즉 배우자의 심각한 부정으로 인해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혼을 하더라

도 간음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혼과 재혼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훈도 함께 다뤄야 한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이하를 보자.

10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2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3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5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맥락에서 결코 이혼을 원해서도 안 되고, 또한 이혼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함께 믿는 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만의 하나 이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지라도 성도는 결코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되며, 독신으로 지내든지 다시 합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말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믿는 자는 불신 배우자의 반응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야 한다. 예컨대 불신 배우자가 계속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속되는 결혼생활을 통해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언제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신 배우자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갈라서라고 권면한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도 이유 있는 이혼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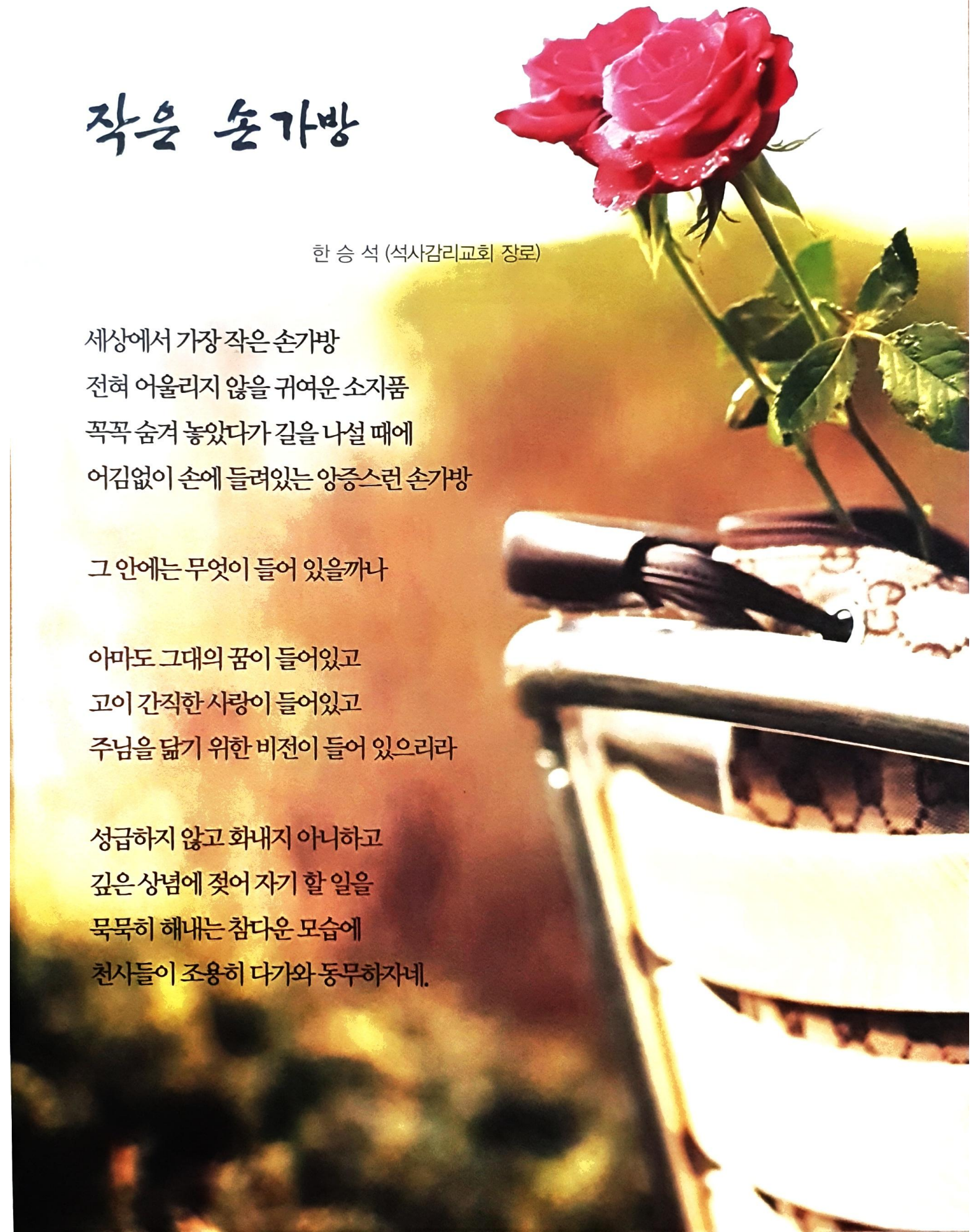
성경적 결혼관을 가르쳐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결혼관은 여기저기에서 공격받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상대방이 적합한 배우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즉시 파기할 수 있는 일종의 성적인 계약관계라는 결혼에 대한 편의 주의적 사고방식이 만연하고 있다. 오늘날 TV, 영화, 소설, 매스컴 등 젊은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침투해오고 있는 그릇된 세상적인 이데올로기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교회는 분명한 성경적 결혼관을 가르쳐야 한다. 한번 결혼한 부부는 금혼식에 이르도록 기도해야한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유 있는 이혼과 사연 있는 재혼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두지는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수님시대의 배우자의 외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은 보다 복잡하게 배우자의 알코올중독, 폭행, 이단가입, 사생활문란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입장을 너무 보수적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그 뜻을 충분히 존중하되, 이유 있는 이혼과 사연 있는 재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르치는 것이 지혜롭다 하겠다.

작은 손가방

한 승 석 (석사감리교회 장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손가방
전혀 어울리지 않을 귀여운 소지품
꼭꼭 숨겨 놓았다가 길을 나설 때에
어김없이 손에 들려있는 앙증스런 손가방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나

아마도 그대의 꿈이 들어있고
고이 간직한 사랑이 들어있고
주님을 닮기 위한 비전이 들어 있으리라

성급하지 않고 화내지 아니하고
깊은 상념에 젖어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참다운 모습에
천사들이 조용히 다가와 동무하자네.



단절을 넘어 사랑으로

이혼한 가정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어떠한가.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대하며,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것이 사회 통념이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일 것이다. 이혼한 가정의 시각이 좋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교회는 벗어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교회는 이혼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며 정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혼한 여성들이 대상이 된다. 교회의 보수적인 입장은 교회가 품어야 할 대상들을 교회 밖으로 내 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한 가정의 현실은 냉혹하다. 가족과의 단절이 첫 번째다. 소통이 아닌 단절을 경험하는 것이다. 사랑하던 관계에서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자녀들은 한쪽 부모의 보살핌으로부터 단절되고 한 부모가 양쪽 부모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손가정의 자녀로 자라는 결과를 낳는다. 통계적으로만 보아도 청소년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가정의 불화 또는 이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혼한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다. 절대로 이혼한 가정이 이전의 하나의 가정에서 누렸던 생활을 누릴 수는 없다. 여성의 경우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고 이로 인해서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욱 서원해 질 수 밖에 없으며, 남성의 경우는 단절된 형태의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혼한 가정은 사회적 편견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다. 재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자녀들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또한

더불어 교회 신앙생활마저 단절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니던 교회에서 이혼이란 아픔을 겪는 경우 보호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될 때 소속된 교회와의 단절을 택하게 된다.

이혼한 가정이 겪는 수많은 단절과 아픔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어야 하는 교회가 그들을 방관하고 편견을 가지고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면,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편견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교회는 이혼한 가정의 자녀의 활발한 상담과 보호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뒤틀린 사랑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저 하나의 가정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더 나아가 이혼한 가정이 단절된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사랑은 관심이다.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기에 앞서 덮어주고 감싸 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가정의 이혼에 대해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현대 사회가 취하는 방법처럼 방관하는 소극적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이혼한 가정의 모든 책임을 가정에게 돌리는 행위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우리의 가족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격려해주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적극적인 자세가 때론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단절을 위한 공동체가 아닌 사랑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그들을 방관하는 사이에 그들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교회를 외면하고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각인 될 것이다. 교회가 피해를 보며 욕을 먹을지라도 그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마땅하다. 고난과 역경 없이 어찌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는가

교회 공동체는 이혼한 가정의 보살핌을 내 가족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명하심처럼 그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단절된 가정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며 혼자서 할 수 없는 가정의 일들을 도와서 그 가정이 사회에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섬김은 꾸준히 겸손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 섬김은 곧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을 만들 것이며 가정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가정은 단절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사랑의 가정으로 다시금 태어날 것이다. 교회가 조금은 더럽고 추한 모습을 덮어주고 간과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통해 이혼한 가정을 회복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글 / 성낙환 기자 pastols@naver.com

가사 · 소년보호사건에서 본 아이들의 아픔

정현희 판사 / 춘천지방법원



법관이 된지 7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민사, 형사, 파산 · 개인회생 등을 담당하다가 올해부터 가사 · 소년보호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가사사건은 대부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그 외에 상속재산에 관련된 사건이고, 소년보호사건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이 범죄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면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하는 사건이다.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모두 가정과 관련된 사건이라 그 무게가 가히 가볍지 않다. 특히 아이들을 대면할 때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아이들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너무나도 크다.

이혼사건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가사조사관이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누구와 살고 싶은지 묻고 이를 판사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판사만 볼 수 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꼭 해야만 한다면 전 누구랑 살게요' 라고 대답한다. 엄마는 아빠가 폭력적이라 아이에게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아빠는 엄마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치하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하지

만,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을 원한다. 아이들이 작성한 문장완성평가 중에는 '내가 가장 원하는 소원은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라고 쓴 아이도 있다.

건강하지 못하게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상처를 입게 된다. ①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떠난 부모가 오랫동안 자신을 찾지 않으면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부모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생긴다. ② 양육 부모마저도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워서, 또는 부모의 재결합을 바라면서, 착한 아이처럼 또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행동한다. 양육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비양육 부모를 함께 공격하기로 한다. 어린 늙은이가 탄생하거나 다른 부모에 대한 미움으로 불타게 된다. ③ 자녀 중 한 명이, 떠난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로 첫째 아이가 사라진 부모의 역할을 하고, 동생은 첫째 아이에게 매달린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④ 자녀의 죄책감은 성인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자녀는 "그때 내가 부모님 이혼을 말렸더라면...", "그 때 내가 아버지 폭행을 막고 엄마를 보호했더라면..."라며 괴로워하고, 우울에 시달리기도 한다. 자신이 양육자로 선택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죄책감, 양육 부모 앞에서 비양육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가진다. 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부모가 싸우고 이혼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결혼생활에 실패할까 두려워 결혼을 기피하기도 하고, 남자나 여자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이성교제를 피하기도 한다. 결혼을 하더라도 부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이혼)해 버리기도 한다. ⑥ 정신병이나 성격 장애 등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부모의 이혼으로 받은 충격을 방치하고, 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이는 심한 우울감을 느끼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심하게 의존하려는 사람, 의처증이나 의부증,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 등으로 성장할 수 있다.

소년보호재판에 오는 아이들 중에는 이혼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다. 이혼가정들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혼과정에서, 또 이혼 후 그 가정들이 겪는 어려움은 아이들을 비행으로 빠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앞서 본 이혼할 때에 받는 상처들이 아이들의 성격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더욱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일들은 심화된다. 이혼을 하고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마저도 지급받지 못하거나 양육비를 지급받더라도 엄마와 아이가 생활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엄마는 생계를 위해 직장에 나갈 수밖에 없다. 안정되지 않은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게 되면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방치된다(이는 아버지가 양육권을 갖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가운데 아이들은 친구끼리 어울리며 PC방, 노래방에서 놀다가 술과 담배를 접하게 되고, 돈이 부족하게 되어

차량 안에 있는 동전을 훔치거나 식당, 슈퍼마켓 안의 물건을 훔치게 된다. 친구들끼리 폭행에 휘말리게 되고 학교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을 법정에서 보고 있노라면 어른들이 문제임에도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아이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가. 이 아이들이 일반가정에서 자랐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이혼가정의 아이 중에 조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꽤 있는데 할머니가 법정에 나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살아 이렇게 되었어요. 다 잘못 키운 제 잘못이에요. 내 새끼는 잘못이 없어요."라며 펑펑 울 때가 있다. 이럴 때는 함께 울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슬픈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이혼사건을 처리할 때는 아이들을 위하여 법원은 많은 후견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먼저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정의 경우 먼저 가정상담을 보내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고 소통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기도 한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하여는 자녀교육영상을 보여주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 후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한쪽 당사자에게 알코올문제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알코올치료를 보조해주거나 정신과 상담의뢰를 지원해주기도 한다. 이혼 후 아이를 만나는 방법(면접교섭)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투입하여 놀이치료, 심리치료를 통하여 아이와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함께 놀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먼저 부모들은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래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이혼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남았더라도 아이에게는 그 감정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고,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자녀의 감정을 잘 살펴주고, 아이가 부모 앞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하며, 양육비 등 자녀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

양육비 사건 중에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양육하는 엄마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양육비를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철없는 아빠도 있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상처는 주지 말아야 한다. 상처를 주었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이들의 양육을 위임받은 부모의 사명이다.



2010 | 석판화 | 25cm x 32cm

까마귀에게 얻어먹다. 박신호 (예술인 선교사)

선지자를 낮추시다.

탐욕스런 새야! 그 고깃덩어리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부정한 짐승아! 너는 누가 보내어 왔느냐?

오! 하나님 하필이면 까마귀입니까? (왕상 17:1~7) 박신

취재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위기의 가정을 돕는 가정 위탁 제도

인터뷰 : 정명훈목사(예강교회)
대 담 : 이병철목사(주향교회)

위탁부모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위탁부모는 가정이 이혼이나 다문화 등의 위기를 만나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아이를 양육한 다음에 다시 본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갓난아이부터 만18세까지가 그 대상이 됩니다. 만약 18세가 되어도 본 가정에 돌아갈 수 없을 때에는 자립하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위탁부모는 아이와의 차이가 60살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언제부터 위탁부모를 하게 되셨나요?

2013년 10월말부터 두 아이를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큰 아이는 이설아이고, 둘째는 이영아입니다. 처음 이 아이들을 맞게 되었을 때는 큰 아이가 21개월이었고, 작은 아이가 8개월이었습니다.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춘천에도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춘천권(춘천, 화천, 홍천, 인제, 철원)에 위탁부모가 25가정이고, 아이들은 3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위탁부모들이 있어야 합니다.

위탁부모를 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결혼 초부터 입양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입양을 못한 것은 입양하려면 상당히 재정이 뒷받침이 있어야 했는데 그 때는 저희 형편상 입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솔리데오 사모 합창단에 오시는 사모님을 통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더 늦기 전에 아이를 키워보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위탁받아 키워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또 본인이 몸이 안 좋은데 아



이들을 키우다보면 자꾸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고 저를 설득을 해서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두 명의 아이를 위탁받게 되셨나요?

우리 집안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커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말이 없이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 보니 한 명의 아이를 위탁받아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연결이 잘 안 되는 일이 두 차례나 생겨 실망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명의 아이를 위탁받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준비하고 있었는데 두 명이라도 키워보자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두 아이가 왔을 때는 낯가림이 심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도로를 지나갈 때도 가판을 펼치는 할머니들을 보고도 무서워하면서 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4개월 지나면서 아이들이 잘 적응하면서 울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집안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늘 조용하게만 있던 집안에 아이들이 온 후부터는 집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좋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으로서 위탁부모를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고 보람도 있었을 텐데, 어떠신가요?

가장 걱정했던 것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고, 울기라도 하면 아무래도 예배에 방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첫 주간에 사모님이 반주를 하는데, 걱정했던 큰 아이는 도리어 잘 적응을 했는데 작은 아이가 떼를 쓰는 바람이 예배 시간을 어렵게 보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어서 예배드리기 전에 작은 아이 영아를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모차에 태워서 앞 쪽에 두었는데 예배가 시작하면서 아이가 유모차에서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1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배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 놓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점이라면, 아무래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본 것이 벌써 30년 전의 일이라 신세대 부모의 감각을 갖고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어렵지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키우고자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 커서 낮에는 어린이집을 보냅니다.

가장 보람이 되고 좋은 것은 두 아이들이 안기고 재롱을 피우고 아빠라고 부르니깐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무뚝뚝한 아들 한명만 키웠는데 이 두 여자 아이들은 아주 밝고 명랑해서 늘 기쁨을 주어 행복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더 큰 것을 느낍니다.

혹시라도 위탁부모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방송에 미혼모가 아이를 시설에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키우고 싶은데 가족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민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조언을 해주는 것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조언자들도 이런 위탁가정 제도가 있는 것을 잘 몰라서 적절하게 조언해 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쉬웠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지만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과 자신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입양의 부담을 덜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위탁가정 제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의 가정을 그나마 보듬어 안고 갈 수 있는 제도라 여겨집니다. 강원도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033-761-1226)를 지정해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과 평화

민족복음화의 꿈

전국 최초로 일어난 '1972년 춘천 성시화 운동' 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운동이 아니라, '민족복음화운동의 아들' 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1927년, 김교신 선생과 함석헌 선생을 비롯한 재일 유학생들이 출간한 「성서조선」이란 작은 잡지에서 「성서한국」이란 상징적 개념이 태동했다 한다. 이러한 성서조선, 성서한국의 꿈은 그 후 혹독한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과 4.19의거, 5.16 쿠데타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 영적 물줄기가 이어져, 1970년대 한경직 목사(영락교회), 김준곤 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등으로 대변되는 "민족복음화운동"과 사상적으로 조우하게 된다.

모델도시 춘천

이러한 성서한국, 평화한국의 꿈이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작은 단위인 지역적 공간에서 그 꿈이 시도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스위스 제네바를 돌아보고, 춘천을 돌아본 김준곤 목사는 춘천의 평신도 지도자들인 윤수길, 문선재, 이학규, 조남진 등 평신도 성경구락부 회원들과 교류를 가졌다. 그리고 1972년 여름에 한국대학생선교회와 춘천의 교회들(위원장/ 김연호목사. 춘천중앙감리교회)이 연합하여 춘천을 민족복음화의 제1 모델도시로 선언한다. 아울러 춘천을 제2의 기독교문화 발상지, 제2의 예루살렘, 제2의 종교개혁 도시 제네바를 닮은 「성시 도시」를 만

들자고 선포하였다. 이것이 1972년 여름의 춘천성시화운동의 시작이었다.

춘천이 고향도 아닌 김준곤 목사의 꿈은 춘천을 5색의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교육의 도시 2) 예술과 관광의 도시 3) 건강한 도시 4) 첨단기술의 도시 5) 거룩한 도시였다.

2015년 현재의 춘천

춘천은 지금 어떻게 변모하였는가? 그동안 춘천은 신앙 1세대의 기도제목 중 일부와 같이 부산, 대전과 같은 대형급 도시는 아니지만 중간 도시(中間都市)로서 호수의 도시, 문화의 도시, 관광레저도시, 해마다 전국에서 가장 가 보고 싶은 도시, 가장 살고 싶은 3대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춘천 국제 인형극제, 마임축제, 소양강 문화제, 닭갈비축제, 막국수축제, 캠핑페스티벌(중도), 책축제(남이섬), 호수축제등 사철 축제가 있다. 오랜 정체를 보이던 인구 증가세도 경춘 고속도로와 전철의 개통과 함께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레고랜드의 설립으로 보다 견고한 축제형 도시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렇다면 춘천의 복음화율은 어떠한가? 20% 남짓의 통계는 만족할 정도는 아니나 '복음의 서고동저(西高東低)' 현상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보다 상위에 있으며, 이는 강원도 시 지역 가운데에는 가장 최우위이다.

또한 춘천의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직장선교연합회, 홀리클럽 등 광위의 기독교연합단체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시의원등을 비롯하여 주요 공직자들의 크리스천 비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화도시 춘천으로의 갈망

춘천 성시화운동은 전언한 대로 소수의 1세대 크리스천 선배들의 기도운동, 성서운동에 의해 점화된 아름답고 순수한 몸짓이었다. 춘천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변화되고 아름다워졌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자기가 살

고 있는 도시를 성시화하자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할까?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떠할까? 생각할 점들이 적지 않다.

인터넷에 "성시화"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선한 기대와는 달리, 적지 않은 공격과 비방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성시화운동에 대한 불교 등 타종교의 오해는 극에 달한 상황에 있다. 바로 성시화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성시화운동을 가리켜 "헌법의 정교분리를 훼손하는 행위", "중세의 십자군운동"으로 오해하고 있다. 성시화가 되면 타종교인들은 모두 추방될 것이고, 중세시대의 마녀사냥과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춘천이 성시화운동의 모델도시로서 타종교에 대한 대응의 논리를 잘 계발해야겠는바, 이참에 제2의 성시화 선언과 함께 외인(外人)들을 위해 "평화도시"로서의 선포가 필요하다. 그렇다.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은 민족 분단의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다. 유일한 분단 도(道)로서 평화에 대한 갈구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일반 죄인이 아닌 중죄인을 유배 보낼 때는 한반도 남단 외딴 섬 지역이 아니면 강원도 두메산골로 유배를 보냈다 한다. 강원도의 화전민들은 핍박을 피해 도피한 민중들의 자취요 후예들이다. 성서에 도피성이 나온다. 사람을 실수로 해한 백성들로 하여금 평화의 성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게 하였다. 가족들이 복수하려고 와도 이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에서는 살인 할 수가 없었다.

16세기 이후에 이 역할을 한 나라가 스위스이다. 스위스는 중립국이요, 문명의 안식처요 정신적 도피성이다. 연합국도 적국도 일단은 이곳에서는 총을 내려놓아야했다. 이렇게 현대의 스위스는 누가 뭐래도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나라이다. 도시 제네바는 스위스의 영적 진원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네바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제네바도 처음에는 그저 호수와 안개에 둘러싸인 벽지촌, 높은 산과 가파른 언덕길 척박한 땅 산간지에 불과했으나 결국 부유하고 평화스러운 세계의 낙원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곳 사람들의 복음 신앙과 평화에 대한 신념이었다. 제2의 제네바, 평화도시 춘천의 꿈은 하늘의 운명이 아닐까?

글 /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분단 70년 춘천통일컨퍼런스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에서는 분단 70년을 맞아 "춘천 통일컨퍼런스 & 쥬빌리코리아 대회"를 "주여! 70년이 찼나이다."라는 주제로 2015년 4월 13일(월)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 가졌다. 통일컨퍼런스 발제 중 주제 발제자인 허문영박사(평화한국 대표)의 "분단 70년을 넘어 통일 원년으로"를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국제적으로 주변 4대국가의 압박에 처해 있고,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상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국내적으로 정치,경제, 사회,군사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이 민족의 오랜 숙원이자, 시대적 과제인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어떤 자세로 어떠한 노력을 전개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2015년 역사적인 의미는 "화해, 평화 및 포로해방의 원년"이다. ①민족사적으로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고, ②세계사적으로는 "제2차 대전 종전 70주년, 독일통일 25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이다. ③선교사적으로는 "한국선교 130주년, 서재필 방미(재미동포) 130주년"이며, ④성경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해방과 민족분단포로 70년"이다.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면 2가지 대결적 흐름이 상충할 수 있는데, ①하나는 긍정적 방향으로 평화통일이고, ②다른 하나는 부정적 방향으로 절대폭풍(북한폭풍, 안보폭풍, 경제



▲ 허문영 박사(평화한국 대표)

폭풍)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절대폭풍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미,일,중,러의 우호적 태도와 협력적 지지를 끌어내야 하고, 평화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군사적 능력등 국가능력을 키워야 하며,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의지 등이 잘 준비되어야 한다.

[2] 한반도 통일문제의 특징을 구조와 상황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향후 통일정책의 방향으로는 ①한반도 평화통일기반조성(단기)와 평화통일(장기)을 중심목표로 분명히 설정하고 한반도비핵화, 남북관계발전, 동북아협력체제 구축, 국내조치 시행(남한의 국민화합, 북한의 체제발전)등 5대 목표를 균형, 병행, 창의, 신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동아시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통일한국을 이룩하기 위한 목표연도와 단계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한국형 대전략을 수립,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민족적 고통을 함께 풀어 온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실천방향으로 1)한국교회의 역할은 ①하나님나라 중심의 변혁적 자세를 정립해야 하며, ②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자세와 ③G-3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적 자세를 정립해야 한다.

2)한국교회의 실천과제로는 ①마음통일을 위해 "통일의지 제고를 위한 대북 사랑기도운동 확산"시켜야 하는데, 먼저 회개해야 하고 남북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하며, 북한선교와 복음통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의 접촉 및 교류, 협력을 통한 정문(앞문)선교, ⓑ탈북동포들의 복음화를 통한 후문(뒷문)선교, ⓒ국제기구 대북지원사업 동참을 통한 측문(옆문)선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윗문선교, ⓔ기도를 통한 영문선교를 통해 십자군정신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정신으로 다시 일어나 섬겨야 한다.

②체제통일을 향해서는 "통일능력 제고를



위한 대내 정의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한 부분이 될 우리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북한 동포들이 희망의 등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회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속 한국 역할이 한국인의 생각보다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다. ③국토통일을 향해서는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대외 평화외교운동"으로 친미 또는 친중 정책과 같이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4국 모두와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십자외교"와 국가 간의 패권쟁탈을 초월하여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외교인 "평화목자외교"를 펼치도록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유도하고 기여해야 한다.

결론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현실은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 주범국이었던 독일은 통일되었으나, 피해국에 불과했던 한민족은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과 냉전질서는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국권을 상실하는 제2 국한말 사태가 재연되어서는 안되고, 북한 및 통일 문제가 국제적 흥정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의 초석은 분단 70년에 놓아져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주변 4국 간 국익충돌가운데 영토분쟁과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인데, 생존확보차원에서도 우리나라는 스스로 지킬 힘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과 한민족 번영추구 차원에서 통일대전략을 잘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품격 있는 통일한국을 위해서도 정쟁과 부패로 물들어 있는 대한민국을 쇄신하고 극단적 대결을 극복하여 국민화합을 이끌어내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을 양성하여, 주변4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호적 협력과 축복 속에 북한동포들의 자원 가운데 평화대국 통일한국을 이뤄내야 한다. 샬롬

취재 /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한국 이슬람의 현실과 전망

이슬람선교학교가 FIM 국제선교회 주관,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지용찬목사)의 주최로 예광교회(조영춘목사)에서 3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매주 화요일) 9주간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슬람선교학교 과정 중 유해석선교사의 강의 "한국 이슬람의 현실과 전망"을 실어봅니다.

유해석 (FIM국제선교회 대표)

최근 세계통계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는 73억 명이 넘었다. 그 가운데 23% 즉, 약 16억의 무슬림이 살고 있다. 전 세계 인구 다섯 명 가운데 한명이 이슬람 종교를 가진 무슬림(Muslim)이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한국에서 생소한 종교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슬람의 흔적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한국역사에서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아랍인들을 만나게 된 문헌의 기록은 신라시대부터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세력이 미미하였고, 따라서 우리에게 이슬람은 낯선 존재였다. 고려시대에는 수도 개경(현재의 개성)에 예궁이라는 이슬람 사원이 있었고 무슬림 약 200여명이 예궁 근처에 살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문물들과 기술들을 교류하는 수준으로서, 고려시대보다 더 활발한 이슬람과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별히 이슬람력(Islamic calendar)은 조선의 역

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칠정산내외편이 만들어지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조선 세조 때에는 투르크-페르시아계 무슬림 거주 지역에서 수출하는 도자기 안료인 회청이 수입되었다. 이로 인해 청자를 넣은 청화백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청화백자의 등장은 도자기 공예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조선시대에 거주하였던 무슬림들은 주로 조정과 상류층 사회와의 교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조정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하였을 정도로 이들의 위치는 중요했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였으며 조정과 주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대중 속에 정착되지 못했고 결국 자생력을 갖지는 못했다.

1. 한국 이슬람의 현실

1990년 이후에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이슬람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한데는 외국인 인구가 유입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에 외국인이 유입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노동인력의 부족이었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이후에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서서히 이름을 떨치기 시작할 무렵 국내노동시장에는 산업별 노동력 이동현상이 일어나면서 제조업 분야에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가난과 실업으로 노동력을 국제시장에 배출해야 했던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노동시장의 판로를 찾아 나서야 했다. 이러한 한국노동시장의 경제적 요구와 아시아 국가 노동인구의 요구가 서로 부합되면서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품고 새로운 노동 시장의 개척지 한국을 향해 밀려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1990년부터 한국의 노동시장에는 한국인 노동력의 수출량보다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량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둘째, 한국의 저출산의 문제이다. 저출산은 저성장을 초래한다. 일하고 세금 낼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 4.53명의 출산율을 기록한 이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산아제한 정책으로 1980년 2.63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1990년 1.60명, 2000년 1.47명, 2009년 1.19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사실 1983년에 출산율이 2.1명으로 떨어졌을 때 신속히 조치를 마련해야 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출산정책을 시작한 것은 2005년 부터였다. 204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00-500만 정도, 2050년에는 800-1,000만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다.

셋째, 고령화 현상이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 인구의 20%가 고령화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50년이면 46%를 넘어설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한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1990년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서 2000년에는 재한 외국인 총수가 20만 명을 넘어서 인구 중 0.44%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 증가세는 한층 가파르게 진행되어 2005년에는 드디어 전체인구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외국인 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3년 말 157만 명을 기록해 4,920만 명인 국내 총 인구의 3.2%를 자치하게 되었다. 저출산, 3D 업종 기피현상과 고령화등을 인하여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인구를 한국 전체인구의 약 14%(643만 명)을 수입해야 한다는 예측 등으로 외국인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외국인의 증가는 이슬람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전 세계 이슬람의 70%는 아시아에 살고 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슬람 인구는 모두 25만 명이다. 비공식적으로는 40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2. 한국 이슬람의 전망

이슬람이 성장하는 이유는 첫째, 다산이다. 이슬람에서 무하마드의 마지막 고별설교를 중요하게 취급하는데 무함마드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Abu Dawood, Nisai and Hakim)고 말하였다. 또한 꾸란은 독신을 허용하지 않는다. "너희들 가운데 독신자는 결혼할지어다."(꾸란24:32) 따라서 무슬림 여성은 모두 결혼하며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서 이슬람은 성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꾸란의 명령(꾸란4:3)에 따라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일부다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둘째는 결혼이다.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남성과 결혼을 하지만(꾸란 2:221), 무슬림 남성은 무슬림 여성, 유대인 여성,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꾸란5:5) 타종교의 여성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때에는 이슬람식 신앙고백을 해야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이슬람법에 의하여 자녀는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양육권 아버지가 갖는다. 무슬림이 한국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면 기독교 여성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무슬림이 되는 것이다. 셋째는 개종이다. 한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한국인이 늘어가고 있다. 2005년에 4만 명이였는데 2009년에 7만 천 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매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약 7천 명이다. 문제는 영국과 미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80%가 교회에 출석하던 기독교인들이다.

한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이슬람 인구가 백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2050년에 되면 이슬람 인구는 약 300-400만 명이 되고 기독교는 한국에서 불교, 천주교, 이슬람에 이어서 4번째 종교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슬람을 알게 된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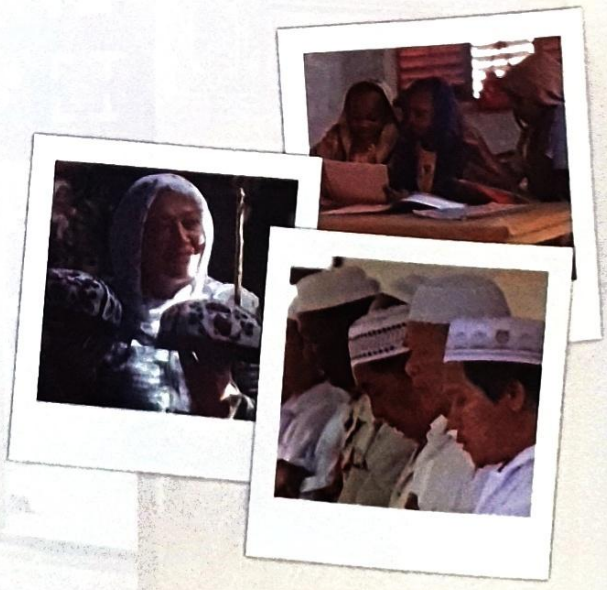
2015년 6월 18일 - 7월 17일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무슬림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다

PRAYING
WITH
FAITH
FOR
OUR MUSLIM
FRIENDS
AND
NEIGHBOURS

주지현 옮김 | 국판 48면 | 2,500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무슬림들이 거룩한 달로 지키는 라마단 기간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간구하는 전 세계적인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30일 동안 무슬림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슬림 세계의 영적 전쟁에 뛰어드는 기도의 용사로 쓰실 것입니다. 무슬림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슬림을 끌어안는 귀한 중보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30일 기도 운동 참여 문의

기도 운동 참여나 기도 책자 구매는 예수전도단 각 지부로 문의해 주세요.

광주지부 062-364-6585
대구지부 053-422-5375
대전지부 042-636-9808
목포지부 061-245-5960
부산지부 070-7585-8379

서울지부 02-873-4192
수원지부 031-295-2021
울산지부 070-7596-7944
원주지부 070-8621-3252
인천지부 032-362-2295

전북지부 063-286-3927
제주지부 010-4937-9504
제주열방대학 064-780-2614
진주개척팀 070-4176-7438
창원지부 070-7596-7951

천안지부 041-554-1098
청주지부 043-231-7616
춘천지부 033-252-1125
포항지부 010-9772-7070

예수전도단 선교본부 http://www.gmk.or.kr

예수전도단
Youth With A Mission

왜 우리는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사이에는 공통된 도덕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사실에 양쪽 모두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은 일상생활에서도 성실, 정직, 긍휼, 명예, 겸손, 순결, 자기희생, 자비, 사랑 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없습니다. 무슬림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할 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 받은 분이라는 사실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복된 소식을 믿는 것은 무슬림에게 있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무슬림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문화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은 우리를 죽음의 세력과 사탄의 묶임에서 자유롭게 해주지만, 지구상 대다수 무슬림이 그 소식을 들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슬림을 사랑하십니다. 무슬림은 존재 자체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의 모든 무슬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무슬림의 언어와 음식, 진실한 생활 방식과 일상생활을 존중하시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영생과 죄사함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뿐입니다.

무슬림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슬림 세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무슬림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라마단 기간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간구하는 전 세계적인 기도운동입니다. 무슬림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슬림을 끌어 안는 귀한 중보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일시: 2015.6.18(목)~7.17(금)

*기도 참여방법: 기도책자를 구입 후, 교회 기도모임과 예배 때 함께 기도 할 수 있으며, 직장 신우회나 가정예배, 개인 묵상 시간을 통해 기도 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책자 신청 및 문의: 담당자 윤진원 간사 (010-9247-2335)

영국교회가 한국교회에게 주는 경고

한 때 기독교 강국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이 지금은 해 지는 나라가 되었다. 동성애와 이슬람 세력 등의 공격에 기독교는 맥을 못 추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교회성장과 선교강국을 자랑하지만, 몰락한 영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Christian Concern for Our Nation 창립자 및 대표, Christian Legal Centre 대표)는 내한하여 "유럽교회가 직면한 신앙의 자유 문제"(동성애, 이슬람, 선교의 자유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전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윌리엄스 변호사는 "영국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로 영국 교회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동성애와 이슬람을 비판할 수 없게 됐다"며 "동성애 문제는 전 세계적 추세인데, 한국 교회가 무관심하면 동성애 합법화는 불 보듯 뻔한 것"이며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지 못하면 영국 교회처럼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했다. 현재는 "영국의 기독교 정치인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정당에서 쫓겨나며 거리의 전도자들은 체포된다. 크리스천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기도를 해줬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또, "영국에서는 초등학교 추천도서들에서 동성애 조장 동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이 책들을 반드시 읽게 한다"며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을 닫는 학교들도 많아졌고, 동성애 문제를 상담해 주던 많은 이들이 법에 의해 쫓겨나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영국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 이지만, 이성애자들 간의 성적 몰락과 더불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1967년 이후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되었고, 심각한 것은 2000년도 군대내 동성애 금지조항이 사라졌으며, 2004년에는 대중 앞에서 남자끼리 동성애 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며 2012년에는 동성애 가정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됐다. 2014년에 동성애자들의 합법 부부가 되는 시민 결합을 허락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영국에서는 이 법들의 실체를 몰라 교회가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강조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들은 처음에는 '인권'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하게 보이도록



영국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

Christian Concern for Our Nation 창립자 및 대표,
Christian Legal Centre 대표

인권문제로 포장해 결국에는 동성애 결혼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은 "지금 세속주의가 영국 기독교에 압력을 가하며 기독교에 대해서는 핍박하면서도 이슬람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서 급진 이슬람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한국에 온 목적은 "영국 교회가 진리에 대한 공격을 받았는데도 영국 교회가 침묵해 붕괴됐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다"며 "한국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진리에 반대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우리가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한국도 지금부터 이 싸움을 위해 펀드를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이고 지금 중요한 시기이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나라와 조국과 후손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길"이며 "다음 세대들이 이런 죄악으로부터 보호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한다"며 "이런 일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은 기독교 운동 측면에서 강한 나라이지만, 강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며 "영국도 강력한 기독교 국가였지만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ams) 변호사는 영국 법정변호사(Barrister)로, 영국 크리스천 변호사 협회(CLC) 공공정책 분과 대표를 역임했으며 영국 국교회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 기관인 General Synod(주교, 및 선출된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의 멤버이기도 하다. 현재 BBC, Sky News 등 다양한 방송출연을 통해 동성애, 낙태, 이슬람, 기독교 신앙의 자유 등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주장하고 저술, 강연, 집회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동성결혼, 동성애 커플의 입양, 낙태 등을 허용하는 법 반대 활동,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반대 활동, 동성애 반대 캠페인 및 집회 옥스포드 대학 등에서 개최, 영국의 이슬람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글 / 안세현전도사 yelloworm@gmail.com



통일세대를 세우라!

변수연 홀리원코리아 교육지원센터 연구개발실장
blog.naver.com/wholly_one

2015년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해입니다. 1945년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지 정확히 70년 되는 해이자, 곧이어 같은 해 시작된 미국과 러시아의 신탁통치로 인해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당시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위기를 넘기고 한반도의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반도 북쪽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분단 70년, 북한은 현재 세계1위의 기독교 박해 국가이자 언론탄압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해야 할 땅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조차 없는 억압과 고통이 가득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언론은 독재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생존권, 자유권, 평등권 등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들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회복하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이러한 외부적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주체사상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는 것이 그 땅의 백성들을 지금의 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제 때가 찼습니다. 통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남북한의 통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프레이, 조지 프리드먼 등 굴지의 미래학자들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또 본인의 저서를 통해 수년 안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1월 한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 대박론"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통일을 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2015년 신년사에서는 분단 70년을 마감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출간된 자서전에서 "통일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통일이 가까워옴을 예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통일이 될지 안될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통일의 여부가 아니라 통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는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오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이든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손을 통해 일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일에 주목하고 지금부터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일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그저 막연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단되어 있던 땅이 하나가 되어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오가고, 둘로 나뉘어 있던 정치, 경제, 사회 제도들이 하나로 통일되고, 70년간 서로 완전히 달라져 버린 남북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 가치관, 생활 습관 등이 다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자들은 이 복잡한 과정 가운데에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민감하게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통일에 대해 지식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통일을 맞이하는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통일 한국을 일으켜 세우고 통일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나가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의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통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세대는 점점 통일에 관심을 잃어가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세대가 먼저 통일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추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통일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직접 풀어갈 다음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져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합니다. 제가 일하는 홀리원코리아 교육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몇 시간 혹은 몇 주간의 프로그램만으로도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할 때 아이들은 분명히 변화합니다.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통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학자 올리히 블룸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통일은 안 온다고 말한 하루 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독일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국은 독일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2014.1.1. 조선일보)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 통일이 되었다는 뉴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통일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통일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먼저 준비하는 자들이 통일 한국의 리더십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평



교회의 미래는 어린이입니다.

그림, 글 / 이관형 기자

예향

다름을 인정하는 여유와 겸손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드레스 색깔논쟁이 있었다. 실제 제작되어 팔린 한 드레스의 색깔이 금색의 줄무늬가 있는 흰색이냐 검정색 줄무늬가 있는 파랑색이냐 하는 것이었다. 당시 AFP통신에 따르면 인터넷 설문조사가운데 같은 옷을 놓고 흰색 바탕으로 보인다는 사람이 다수인 72%, 파랑바탕으로 보인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28%였다. 하지만 실제 판정은 파랑 바탕의 드레스였다. 왜 이렇게 다르게 보였는가? 관련 연구가들은 우리가 색깔을 인지하려면 빛을 통해 인지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자기 눈에 도달하는 빛의 광자를 정확하게 복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흔히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비교하여 말한다. 그렇다. 많은 서로 다른 주장의 경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와 겸손이 필요한 시대이다.

글 / 최상도 기자

강원대학교 기독교수 선교회



대담

이일세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독교수선교회 회장

이병철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강원대 기독교수선교회의 주요 활동(정기모임이나 주요 행사)이나 임원은 어떻게 되시나요?

강원대학교 기독교수선교회는 150여명의 강원대 재직 기독교수들이 믿음 안에서 모여 캠퍼스 복음화와 신앙성장 및 친목도모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초에는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개강예배를, 그리고 학기말에는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종강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새내기를 맞이하는 3월에는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들과 연합하여 학생, 교수, 직원의 연합 개강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연합개강예배에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김창환 이사장님께서 뜨겁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기독교수선교회의 가장 큰 행사는 무엇보다도 금년에 20회째를 맞는 '음악과 강연의 밤'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학기 중에는 단과대학별로 성경읽기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는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선교사역에 관한 말씀을 듣거나 창조과학이나 이단 등에 관한 특별강연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저희 기독교수선교회의 임원을 소개드리면,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일세 교수가, 부회장은 식품생명공학과의 오덕환 교수가 섬기고 있습니다.



매년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를 선교단체 연합회와 함께 해 나가시는데, 학원 전도뿐만 아니라 연합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에 대해 소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춘천지역 청년 및 대학생 복음화를 위해 1996년 처음 열린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가 어느새 20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많은 젊은이들을 초청하여 찬양과 뮤지컬, 연주와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재미를 선사하며, 또한 강연과 간증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종의 청년전도 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믿지 않는 청년들이 음악과 강연을 통하여 자연스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비기독교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획되고 진행됩니다. 음악부분에서는 일반인들도 좋아할 문화 콘텐츠를 담는데, 대학로에서 성황리에 공연되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초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연부분에서도 기독교의 심오한 교리를 선포하기 보다는 청년의 비전을 일깨우고 현실의 삶에 있어서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복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비신자들이 복음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또 다른 목적은, 대학 내외의 각 기독교 단체가 연합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김과 사랑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강원대기독교수선교회와 선교단체가 주축이 되어 준비하지만, 그 외에 강원대 직원 신우회와 춘천지역의 여러 대학 기독교수회의 참여와 협조로 이루어집니다. 나아가 춘천지역의 여러 교회가 재정지원과 차량지원 등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도 행사홍보와 각 교회에의 협조공문 발송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가 20년간 지속되어 열리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이 행사가 이렇게 장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일정과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에는 많은 재정적 부담과 준비과정에서의 수고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씩이나 지속되어 온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공연을 통하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고 또한 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귀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음악과 강연의 밤은 5월 26일(화) 저녁 7시부터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음악부분은 '메리골드' 라는 뮤지컬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이 뮤지컬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자살을 주제로 한 것인데, 각박한 현실 속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을 기획의도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기러기 아빠, 외모지상주의, 성적지옥을 비롯한 5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에피소드마다 펼쳐지는 주인공들의 가슴 아프고 절절한 삶과 사랑이야기가 신선한 노래와 재치 있는 대화를 통해 가볍지 않은 웃음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연부분은 서울 나들목교회의 김형국 목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김목사님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가정교회의 연합을 통한 목회를 지향하고 계시며, 또한 청년사역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춘천 지역교회에 바라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과 강연의 밤은 춘천지역의 젊은이들이 건전한 청년문화를 접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하며 복음을 받아들인 젊은이들은 지역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점에서, 한 대학만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캠퍼스복음화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명이라 할 수 있으며, 대학과 선교단체와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수고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춘천지역의 많은 교회에서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에 재정지원과 차량지원 등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역교회의 참여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음악과 강연의 밤 행사의 초창기에는 20여 교회가 후원을 하였는데 지난 해에는 다섯 교회에서만 후원해 주셨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백령아트센터는 1,600석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는 800여석 정도만 차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행사의 열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지역교회가 청년교인들을 참여시켜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된답니다. 아무쪼록 이번 5월 26일에 열리는 행사는 지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 속에 기도로 준비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FRANZ PETER SCHUBERT : 1797-1828)

들장미, <Heidenröslein >

이제 신록이 넘실대는 나뭇잎들 사이로 흐드러졌던 목련은 지고 제법 봄비와 함께 더욱 만발한 희고, 연분홍 꽃들이 호숫가와 가로수 그리고 산마다 손짓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슈베르트의 로맨틱한 가곡들이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13세에 작곡을 시작해서 이미 18살에 아름다운 가곡을 140여 곡이나 썼던 19세기의 로맨티스트 작곡가인 그가 31세에 요절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늘 그렇듯이 천재들의 죽음 뒤에는 가난과 고독함이 자리잡고 예술의 혼을 불태웠다는 것은 오랜 인간사의 비극입니다. '한 송이 들에 핀 장미꽃처럼'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여행도 다니며, 600여곡의 가곡으로 독일 리트형식(가곡)의 대가로 훗날 명성을 날리게 되었고, 미완성 교향곡이나 소나타, 오페라도 남겼으나 무엇보다도 형식적인 음악세계보다는 그의 가곡처럼 더 자유로운 형식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는 낭만파 창시자답게 존경했던 베토벤의 장엄함과 무거움보다는 고전파를 벗어나 후에 슈만이나 브람스에게 깊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주옥 같은 많은 가곡들이 있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곡들 중에서 특히 〈들장미〉는 초기에 쓴 곡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피아노 오중주로 좋아하시는 〈숭어〉, 교향곡 제8번〈미완성〉,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처녀〉, 〈겨울 여행〉, 일제 강점 시대 때 잘못 전해져서 〈겨울 나그네〉로 불리우는 가곡집과 마지막으로 사후에 편집된 〈백조의 노래〉 등이 있습니다.

그가 생전에 존경했던 베토벤을 만났을 때, 그는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 자네를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내 명은 이제 다 되었네. 슈베르트, 자네는 분명 세상을 빛낼 수 있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것이네. 그러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말게…" 그 후 베토벤은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났고, 그 역시 1년 뒤에 들꽃처럼, 황량한 겨울 여행의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오늘은 오후의 따스한 햇살을 받으시며, '목련 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질 읽노라' 사춘기 시절 부푼 마음으로 교정에서 낡은 오르간에 맞춰 부르셨던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서서 악보를 준비하시고 목청을 좀 가다듬으시지요? 그리고 담장에 꽃망울을 터뜨리는 장미넝쿨을 바라보시며, 알프스의 푸르른 들판을 상상하시지요. "… 한 아이가 보았네, 들에 핀 장미꽃…"

만천리에서 보내드린 다니의 음악과 함께 한 초여름 소식이었습니다.

글 / 김금찬 선교사

바보들의 천국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을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도서 3:11)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천국은 자유와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안락이 영원히 보장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두 이런 천국의 삶을 추구한다. 이 땅에서의 천국을 추구하기도 하고 저 하늘에서의 천국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모두 천국을 원하되 '오직 나만을 위한' 탐욕으로 그것을 잘못 추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탐욕이란 돈, 권력, 명예, 쾌락 등을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동물적, 비이성적 욕심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 쾌락이 곧 천국의 절대 조건이라고 오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 좌충우돌 싸우고 속이고 공격하면서 위선적으로 음모를 꾸미는 추악한 모습이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온갖 사고 사건들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국가 사회적 양상이 모두 이와 같은 맥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작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와 올 4월에 벌어진 성완종 사건은 어떤 모습인가? 불행하게도 우리 국가 지도자들, 특히 최고 통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개인적으로나 국가 사회적으로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자기 탐욕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통찰과 회개와 진리 회복은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잠언 21:3) 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인 유병언은 기독교복음침례회라는 일명 구원파의 최고 지도자이고, 성완종은 교회 장로이되, 두 사람 모두 똑 같이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는 반대로 탐욕적 술수가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주요 가치는 돈이고 명예이고 권력이며 여기에서 비롯되는 당장의 쾌락이다. 돈,

명에, 권력, 쾌락이라는 이 네 요소는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억압하는 악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화목과 협동과 용서와 포용력을 통해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즐기면서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감사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두 원인 제공자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국가 사회 지도층이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르침보다 자기 개인적 탐욕에 빠져 온갖 음모와 술수를 다 동원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경계하고 힐책하며 벌까지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누가 복음 12:2) 악을 행한 사람은 결국 누구나 멸망의 길로 추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들 두 사람의 거짓 행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국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지식인들이든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안타깝게도 사회적으로 더 강한 힘을 쥐고 만인 앞에 나서서 주도력을 발휘하는 그 '똑똑한 사람들'의 빗나간 생각으로 계속 국가 사회가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국가 사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보통 사람들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국가 사회를 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하며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상층 지도 세력들이 온갖 거짓과 부정부패에 빠져 사회 혼란의 주범이 되고 있으니 말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누가복음 12:2)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배우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천국으로 잘못 추구하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렇게 많은 지배 세력들의 잔꾀로 말미암아 빠져 있는 악의 함정을 "바보들의 천국"이라고 불러본다. 오직 탐욕에 의해 추구되는 가짜 천국! 진실로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 국민 전체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진짜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헛 똑똑한 우리의 수많은 지배 세력들은 본능적 탐욕의 잔꾀에 빠져 지옥을 천국으로 잘못 알고 물귀신처럼 국민들까지 그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이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시편58:1-2)

글 / 박민수 교수
순복음춘천교회 장로, 박민수뇌경영연구소 소장



유경천 형제 (서울교회)

부부(夫婦)의 제일덕목(第一德目)

"그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the woman whom thou gavest to be with me) 곧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창 3:12)

아담의 여자(범죄 후 하와가 됨)는 아담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였다. 그런데 그녀가 뱀에게 단독으로 시험받았다는 점은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하지 않았음을 시사해 준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여자가 남편과 떨어져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며, 사탄이 시험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오늘날 가정의 부부들에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부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가 하루 종일 떨어져 지낸다. 심지어 어떤 부부는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다가 주말에만 잠깐 같이 지낸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관계로 남편이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현대의 가정은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제약된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것도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탄이 이 세상의 구조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밖에서 생업에 시달린 남편은 밤늦게 귀가해서 겨우 잠만 자고 나간다.

상이 이렇다 보니 많은 아내들도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잠자리에 들거나, 남편의 귀가를 맞이해도 별다른 대화 없이 잠자리에 들곤 한다. 남편 역시 너무 피곤해 대화할 기력조차 없다.

어찌되었든 24시간 중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은 현대의 경제 환경이 가져 온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그러나 이런 현실 외에도 현대의 주부들은 남편의 그늘에서 독립되어 있다. 아내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함으로 남편의 여건과는 상관없이 여자들 스스로가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그 여자가 그랬듯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직장상사나 고객 등)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 오늘날 가정과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시키는 거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주는 커다란 속임수이다.(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 잠 31:11 이하를 보라.)

사실 이런 세태는 왜 여자들이 가정을 벗어나, 남편과 떨어져 있게 되면 부부간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답이 되는 동시에 왜 아내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성경적 부부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런 세상 풍속도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롬 12:2)

그리스도인 부부는 가급적 모든 면에서 함께 해야 한다.(고전 7:5)

그것이 비록 영적인 사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을 따라 다녀야 한다.(고전 9:5)

사도 바울도 믿는 부부의 별거는 기도와 금식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은 그리하되 다시 서로 합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하므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전7:5)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이나 사업에 열심인 것은 좋으나 너무 바빠 아내와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 아니다.(약 4:13-17) 아내를 홀로 남겨 놓고 돈을 벌기 위해 먼 곳으로 간다면 비록 돈은 벌어 올지 모르지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또 다른 선악과(善惡果)를 손에 들고 당신을 맞이하는 아내를 보게 될 것이다.

영이 살아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

요한복음 4장 1~42절

인생은 만남을 통해 새로워진다. 좋은 만남은 인생을 축복되게 한다. 잠언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다(잠27:17). 좋은 만남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만남이다. 그러나 좋은 만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장벽을 넘어 한 영혼을 만나 회복시키셨는가?

첫째,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을 만나기 위해 많은 장벽을 넘어서서 오셨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인생의 아픔을 가진 한 여인이 나온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으로 뜨거운 한 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다. 뜨거운 한 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온 것은 남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못한 것은 그녀의 가정이 온전치 못해서이다. 그녀는 이미 다섯 명의 남자를 바꾸어 가면서 살았고, 여섯 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 그녀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보여준다. 왜 이 사마리아여인은 한 두 명의 남자도 아니고 다섯, 여섯 명의 남자를 바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단지 남자를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행복한 가정을 향한 갈망이 영혼 깊이 숨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엡6:22),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엡6:25),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엡6:1),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엡6:4)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갈망만큼이나 삶은 상반되게 흘러갔다. 누가 이 여인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깨어진 꿈과 상실한 마음을 갖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v.4)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돋보인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시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듯이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셨다. 예수님은 당대의 시대적인 장벽이었던 남자와 여자와의 경계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경계를 허무시면서 이 여인을 찾아 가신 것이다. 목마른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파격 그 자체였다. 완전한 의인으로서 죄인인 사람들에게 서조차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인 이 여인을 전혀 위협적이지 않으시고 온유하게, 그녀가 알

아 듣고 그녀가 이해하도록 접촉점을 찾아 간접적으로 더 깊고 온전하게 그 영혼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견인하셨다. 주님의 발걸음은 그 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둘째로,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시고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셨다.

수가 성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v.5,6). 사람들은 이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마셔 육신의 목을 축일 수는 있었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는 없었다. 예수님은 한없이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있으나 사람의 시선을 피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우물을 찾아온 이 여인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생명수를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v.13,14). 야곱의 우물에서는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은 취해도 결국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다섯, 여섯 명의 남자를 바꾸어 살아도 만족함이 없듯이 말이다. 남자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릴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야곱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 아니라 생명수를 마셔야 한다. 이 생명수가 곧 성령님이시다.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나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하도록 보내주시는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분을 통해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요3:34) 위해서였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요6:63).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7:37,38). 즉 그 영혼의 중심인 배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시다. 내 영이 살면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된다.



이병철 목사
주향교회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심지어 영화를 잘 보지 않는 문외한이라도 그를 모르는 현대인은 또한 드물 것이다. 그만큼 헐리우드 영화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뛰어난 외모와 함께 화려한 이력을 가진 배우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도 존 보이트라는 당대의 유명한 배우였으며 그녀 자신 브래드 피트라는 당대의 대스타와 결혼하여 화제를 뿌리기도 한 것이니 온갖 메스컴의 단골 메뉴감인 것이다. 〈툼 레이더〉 시리즈 영화에서 여전사로 유명한 액션전문여배우이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며 스크린을 누빈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런 그녀가 메가폰을 잡아 탄생시킨 첫 영화가 〈언브로큰〉인데 하필 그 영화를 소개한 이유는 그녀의 스타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회심 문제를 다루었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독자들은 알 것이다. 아니 제작과정에서 신앙적인 의미의 체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난해 연말 이 영화를 소개한 크리스천 투데이의 기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한다.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신실한 크리스천 루이스 잠페리니(Louis Zamperini)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언브로큰' (Unbroken) 촬영 도중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



작년 2014년 7월 97세의 나이에 작고한 잠페리니는 젊은 시절 육상선수로 활동하다가 19세 최연소 선수로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해 세계의 이목을 받기까지 했지만 태평양전쟁 발발로 공군으로 입대해 복무 중에 추락으로 태평양에서 47일을 표류한 끝에 일본군 포로로 잡혀 종전(終戰)까지 3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역경을 살아낸 끝에 용서의 마음으로 목회자로 남은 생애를 보낸 사람이다. 하나의 기적같은 그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감독 안젤리나 졸리는 원래 신앙인이 아니었는데 주인공 짐페리니의 딸이 권유하여 기도를 배웠다고 한다. 촬영장에서 중요한 장면을 찍으려 하는데 마침 태풍이 불어서 난감한 차 졸 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와 무사히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는 일화이다.

여성 감독 같지 않게 스케일이 큰 블록버스터로 제작하여 영화적인 완성도가 첫 작품치고 훌륭하게 나왔다는 평을 받았다. 태평양에서의 길고 지루한 표류의 장면이 작년에 화제가 된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를 떠올리게 하지만 전우애의 처절한 형상화가 잘 이루어졌고, 포로수용소의 일본군 장교의 캐릭터가 잔인하면서 복잡한 성격으로 나오면서 주인공의 수난이 극대화되는데 여기서 주연배우 잭 오코넬의 연기가 빛나게 된다. 화제의 문제작을 만들기로 유명한 코엔 형제가 극본을 맡은 등 더욱 탄탄한 스탭진까지 자랑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적인 박진감과 영상 및 완성도를 제대로 맛보며 우리는 연단과 용서의 메시지에 대해 새삼 묵상할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다.

첨언하여 이 영화에서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소망을 버린 채 좌절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부서지지 말라'가 아니라 '부서지지 않는다' 일지도 모르겠다. 견디는 삶의 위대함 말이다. (크리스천 투데이)

글 / 김춘배 기자
beller@hanmail.net



아침예찬
앞치마를 두른 아빠

이번 호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자녀와 함께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소개하려고 했으나 호기심 많고 활동량 많은 유아를 대상으로 갈 만한 음식점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 음식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정작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막상 갈 만한 곳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제목과 같이 가정에서 아빠가 요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글을 써본다. 엄마가 아닌 아빠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면 호기심 많은 어린 자녀들은 더 좋아할 것이다. 또 정서적 안정감과 강한 소속감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맛 기행 형식의 글을 필자도 뭔 운명의 장난인지 라면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아내와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아침밥상을 차리고 있다. 그래서 일까? 매일 요리를 하다 보니 어느새 달인의 경지를 넘어서 '앞치마를 두른 남자'란 제목으로 신문이나 잡지책에 소개가 된 후 공중파 3사 방송에 출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고 아빠가 매일 요리를 하라는 그런 얘긴 아니다. 어느 특별한 날에 아빠가 요리사가 되어 자녀와 함께 아빠도 행복한 시간을 갖자는 얘기다. 그 요리가 거창한 퓨전요리가 아니어도 좋다. 그냥 면 종류의 간단한 요리라도 상관없다.

지난달부터 아들 녀석이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에서 아침식사를 안하고 오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으니 매일 아침밥상 사진을 보내라는 과제물이 왔다. 그래서 늘 하던 것이지만 국과 반찬이며 하다 못해 반찬을 어떤 그릇에 담을까 살짝 행복한 고민을 하며 사진촬영을 해서 학교에 보낸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위탁한 자녀이다. 이런 소중한 자녀를 아침마다 밥을 굶기면 장차 천국나라 확장에 쓰임 받게 될 군사를 허약하게 만들어서야 말이 되겠는가? 아침은 그냥 밥을 먹자는 의미가 아니다. 가족과 함께 모이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소중한 시간이다. 비록 그 시간이 짧더라도 큰 의미가 담겨있다. 이와 같이 자녀가 든든한 보호와 애정을 받은 상태에서 자기 존재감에 대한 확신과 안정감을 누리면 내일을 꿈꾸고 무언가 해내고자하는 동기를 가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매시간, 매일의 삶을 그저 버티고 생존하기 위해 어른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녀들은 매번 낙심해야 하는 순간을 모면하도록 하는 방법만 터득할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난 자녀는 부모를 멸시와 원망의 대상으로, 그저 자기의 삶을 위해 돈이나 대주는 물주로, 아니면 거추장스러운 짐짝처럼 취급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할 것이다. 잘 키워야 나눌 것도 많다.

글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다음세대들이 불 같이 일어서도록 도고해주세요

[IVF]

· "음악과 강연의 밤"(5월 26일) 준비와 함께 이루어지는 전도 사역들을 통하여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입니다. 학생들이 기대와 소망으로 등록하고 수련회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 간사님들의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게 하소서.

[JDM]

· 중간고사기간 캠퍼스지체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학업에 임하게 하소서.

· 디모데(TTS)훈련생들이 무박 2일 수련회를 통해 훈련과 제자의 삶에 더욱 확고한 부르심을 얻게 하소서.

· KDTI훈련 후 세네갈 스텝으로 임명받는 하루나 목사, 모니카 자매가 성령 충만하여 세네갈에서 제자훈련가로 탁월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 대학가에 신천지가 심각하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춘천지역에 신천지가 발 디딜 수 없게 하소서.

[GBT]

· 2차 선교를 돕는 재능기부를 통해 성도들이 선교 관심자가 되고 동역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 선교학교가 성령 충만함으로 진행되어 교회와 개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소서.

· GBT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영, 혼, 육이 강건하게 하소서.

[인터콥]

· 월드미션(매월 둘째 주 월요일)을 통해 개인과 교회, 춘천 지역과 나라, 열방에 예배가 회복되고, 열방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 비전스쿨 훈련생 17명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알고, 각 사람에게 맞는 훈련을 하여 10만선교사 100만성도 운동에 동참하게 하소서.

· 제3회 국제컨퍼런스(GA)를 통해 한국과 세계 교회가 세계선교를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YESCOME]

· 각 중.고등학교마다 있는 학교별 예배 및 기도모임을 통해 학원복음화가 불 일듯 이루어지게 하소서.

· 각 학교를 섬기는 간사, 핼퍼 및 모든 스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 에스컴 내 모든 양육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CCC]

· 여름수련회 가등록이 시작되었는데 많은 지체들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믿음의 도전 감당케 하소서.

· 일본 동아시아 단기선교와 카작 동아시아 자비량 선교사 잠비아 멕시코A6 광주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 사역 준비를 성령과 기도 속에 잘 준비 하게 하소서.

· 각 캠퍼스마다 기도와 말씀 전도의 운동이 다시 불 붙듯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몸에 좋은 건강식품의 비밀

정말 그 많은 건강식품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강에 좋을까?

정기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았다며 당뇨병 진단을 위해 젊은 여자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왔다. 어머니도 당뇨병이 있다던 환자는 최근에 돼지감자를 어머니와 같이 먹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당뇨와 고혈압에 좋다는 말이 돌면서 돼지감자가 요사이 부쩍 인기가 많아졌다는데 사실인가 보다. 수년전에는 동충하초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우리 병원에서도 동충하초를 먹는 환자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복용하던 당뇨약도 의사 몰래 끊고 동충하초만 먹다가 와서는 당을 재달라는 환자도 있었다.

이 밖에도 간에는 인진쑥이 좋다고 하고, 가시오가피는 몸의 면역력을 비롯한 다방면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영지버섯은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아주 귀한 선물 목록 중 하나가 된지 오래다. 효소를 담는 법과 해독주스를 만드는 레시피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어느 집에서나 효소 한두 개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그 많은 건강식품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강에 좋을까?

답은 '아니다' 이다. 물론 이런 건강식품들은 실험을 해보면 정말 효과가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효과가 있다는 말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아니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니다.

특정 건강식품들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다이아벡스(metformin제제)란 당뇨약 보다 좋지 않다. 다이아벡스란 당뇨약은 이미 수십년을 당뇨환자들을 치료한 데이터와 효과들을 축적하고 있고, 모든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이미 끝난 좋은 약이다. 이 약의 가격은 한 알에 단돈 70원이다. 이런 약과 건강식품들은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떤 이들은 특정건강식품을 장기 복용하면 당뇨병을 고칠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당뇨병은 고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고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다. 그리고 만약 특정건강식품이 당뇨병을 고친다고 증명이 된다면 이는 노벨상 감이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간과 신장에서 대사되어 처리된다. 어떤 특정 식품을 매일 먹게 되면 그 식품을 처리하는 통로가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간이나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술이다. 알코올은 간에서 '시토크롬 P450 2E1' 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대사 되는데, 이 효소는 다른 약물들과 여러 음식물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래서 술을 많이, 자주 먹게 되면 이 효소를 통한 간의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간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신장(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지 못하게 하는데,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이다. 항암에 좋다는 음식을 부부가 한잔씩 마시고 백혈병에 걸려 같이 치료했던 일도 있으니, 암세포를 죽이려다가 사람이 죽을 뻔했다.

당뇨환자의 식이치료는 건강식품이 아니다.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가 기본이고, 오히려 과일 섭취를 하루에 1개, 음료수를 하루에 1잔으로 제한한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과일이 당뇨환자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이자 비만시대이기도 하다. 지나친 칼로리 섭취로 인한 건강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때이다. 우리에게 하루 세끼 이외에 더 필요한 식품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대인에게서 건강은 음식을 먹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식을 제한해야 지킬 수 있다. 요즘 교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일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아는 것인 것처럼, 건강 문제도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야 지킬 수 있다.

글 / 고석연 원장 (고석연가정의학과)

부활절연합예배



4월 5일(주일) 새벽5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연합예배가 기독교연합회 주관, 춘천교역자연합회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홀리클럽 강원CBS 후원으로 호반체육관에서 있었다. 차덕수목사(강원침례교회,수석부회장)의 사회, 남궁연장로(중앙성결교회,부회장)의 대표기도, 차성회목사(샘밭침례교회,부서기)의 성경말씀 봉독에 이어 성결교단연합성가대(중앙,소양,나눔,소양제일,새순)의 찬양이 있었고, 지용찬목사(은혜장로교회,연합회장)의 "부활하신 예수님(요한20:19~23)"이란 제목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뒤이어 "한민족 평화통일을 위해서" 박상칠목사(신성감리교회),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박찬욱목사(새순성결교회), "춘천성시화와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이수형목사(순복음춘천교회)의 특별기도인도가 있었다. 장춘근목사(남산감리교회)의 헌금기도에 이어 강원CBS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의 봉헌찬양이 있은 후, 오의석목사(순복음조은교회,총무)의 광고와 박상호목사(춘천제일장로교회,증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조찬이사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조찬이사회가 4월 8일 오전7시 제일장로교회(박상호목사)에서 있었다. 이날 김창환이사장(온누리교회)의 인도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선교단체 기관단체 교회연합으로 진행되는 블레싱춘천을 상반기(6월26일~27일), 하반기(9월, 10월 성시대회전)에 진행되는 것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정기모임에 하기로 했다. 다음 조찬이사회 정기모임은 5월1일(금) 오전 7시 라뜰리에에서 갖는다.

춘천성시 매거진 편집회의



춘천성시 매거진 5월 198호 편집회의를 2015년 4월 8일(수) 오후2시 성시본부 회의실에서 갖고 편집방향에 논의하고 기도하며 마쳤다.

교역자연합회 주관 성지순례 기행



4월 9일(목)에는 춘천 교역자연합회(회장 김종익 주관으로 목회자와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기독교 순교자기념관과 독립기념관을 순례하는 역사기행 행사를 가졌다. 50여명이 참여했는데 참석자 모두 이번 순례기행을 통해 각자 부르심의 사명도 재확인하고, 교제를 통한 힐링의 시간도 되었다고 한다.

춘천통일컨퍼런스 및 쥬빌리코리아 대회



4월 13일(월) 주향교회(이병철목사)에서는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주최로 춘천통일컨퍼런스 및 쥬빌리코리아 대회가 있었다. 오후2시부터 6시까지 통일컨퍼런스와 북한식 저녁식사 후 7시부터 열린 쥬빌리코리아가 "주여~ 70년이 찼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있었는데 "교회 재건없이 70년은 없다(단9:1~2)" 설교제목으로 유관지 목사(북한교회연구원)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각 영역별기도로 "국가와 지역의 리더십을 위해" 신재원목사(새춘천교회), "성시화운동과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조영춘목사(예광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 "북한의 본질적 변화와 통일선교사역을 위해" 신성균목사(열린교회, 강원대교수), "다음세대를 위해"김마태전도사(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부), "캠퍼스를 위해"장소영간사(CCC 춘천지부), "군선교를 위해"이병길목사(2군단 한빛교회), "세계선교의 완성을 위해" 조은제선교사(베드로선교센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김수복목사(거성침례교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춘천대표)의 축도로 마쳤다.

춘천기관장 모임



4월 14일(화) 오전7시에는 춘천기관장 성경공부모임이 홀리클럽(황병호장로, 제일장로교회)주관으로 세종호텔에서 있었다. 이 날에는 초창기 춘천기관장모임을 이끌었던 전용태장로(로고스법무법인, 변호사)부부가 함께 하였고, 성기문법원장(춘천지방법원), 신승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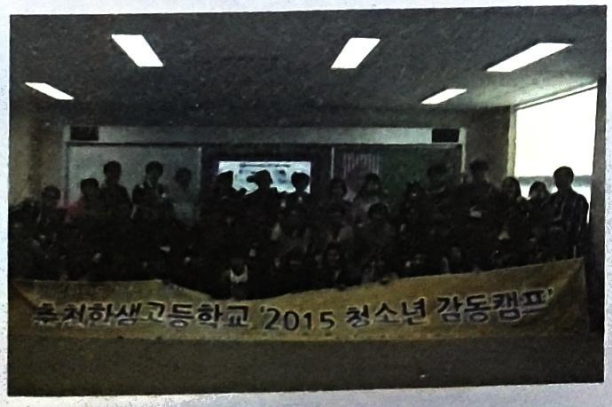
총장(강원대), 김철영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과 황병호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함께 교제하며 애찬을 나누었다.

결혼세미나



4월 18일(토) 오후3시~6시까지 JDM에서는 결혼세미나가 있었다. 정경수소장(행복충전소)의 강의로 "우리 결혼할까요? 서로 이해하기"란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특별한 세미나가 되었다.

청소년 감동캠프



4월 18일(토) 오전9:30~4:30까지 한샘고등학교(김성태교장)에서는 청소년감동캠프가 두란노아버지학교(한택수장로, 온누리교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 날은 교장선생님 학생 학부모 섬김이 포함 40여명이 모였다. 청소년감동캠프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특별한 캠프는 기계공고, 소양고에 이어 한샘고가 3번째다.

춘천기독법조인회 애중회



춘천기독법조인회 애중회(회장:정현희판사)가 지난 21일 화요일 오전12시 법원 3층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성기문법원장을 비롯한 판사와 직원들이 참여하였고 허창목사(반석침례교회)의 "삶을 온전케 하는 언어(약3:1~12)"라는 제목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애중회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12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다음 모임은 5월 19일(예정)이다.

선교단체대표 조찬모임

4월 24일 오전7시에는 선교단체대표 조찬모임을 성시본부 회의실에서 가졌다. CCC와 IVF, DFC, ESF, 어린이전도협회등 각 단체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이병철사무총장의 인도로 선교단체와의 비전 공유 및 연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블레싱 춘천(9월)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강원학교조례공청회 개최 무산



강원학교인권조례공청회가 지난 금요일 4월 24일(금) 오후2시 춘천교육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단체, 교원단체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연다고 공지가 되었으나, 14일 전 사전 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공고 후 7일 만에 개최해 도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강한 반대에 부딪혀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공청회전 학부모 설명회조차 한번 열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사전공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례내용에 대해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 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법에는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있지만 학교인권조례에는 이 같은 내용을 삭제했다고 했지만, 조례 안에 포괄적인 조항은 그대로 있고 그 조항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들을 잘 알고 있는 학부모들의 이런 항의를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하고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춘천에 이어 원주, 강릉에서 개최예정이었던 공청회도 함께 무산되었다.

10. 통일광장기도회



4월27일(월) 저녁8시 석사교 하천무대에서 통일광장기도회(김수복목사, 거성교회)가 있었다. JL클럽(강수인목사, 선교초대교회)의 찬양인도, 조은제선교사(베드로선교센타)의 사회, 김성욱대표(리버티 헤럴드 대표)가 말씀을 선포했다. 김성욱대표는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쥴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북한의 실체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 한다. 통일은 영적싸움인 것을 인식하자. 우리는 기도로 먼저 승리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동부장로교회 시니어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해 북한구원과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마쳤다. 다음모임은 5월 25일(월)이다.

취재 / 성시매거진 편집부

알려드려요

춘천홀리클럽

1.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헌금으로 진행

2.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ly
또는 다음카페/춘천홀리클럽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이기영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장소 : 후평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한마음 조기탁구회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회비 : 월4만원
☎ 010-3375-4323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대상 : 목회자 사모
장소 : 춘천은혜교회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2492-4316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화요모임 헌신자 모집

대상 : 현대무용 워십찬양율동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
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20분
장소 : 우두동 벧엘교회 2층 주일학교 예배강당
☎ 010-9495-1029 한혜영 집사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9-9138-4452, 033-251-4452

탁구대 무료기증 받습니다

☎ 예수제자교회 010-3771-0834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1-5652 입원상담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월드비전 누리꿈터(청소년 공부방)

일시/시간 : 평일 월~금,(주5회) 오후 17:30 ~ 19:30
장소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청소년 공부방 교실
대상 : 중학교 1~2학년(저소득 청소년)
내용 : 수준별 학습지도(영어, 수학),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검사, 진로관련 활동, 문화 활동(영화관람, 뮤지컬 관람 등)
기타 : 귀가 차량운행 실시, 수업료 무료
☎254-7244(내선3번) 심효선 사회복지사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가보자!!

홍천 한서기념관



한서 남궁 억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무궁화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
기독교 성지 홍천 한서 기념관에 친구들과 함께,
손자손녀들과 함께 자주 찾아 오시면,
우리들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되며,
정신줄을 한 번씩 당겨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서교회 홍천 033)434-1069 / 한서기념관 홍천 033)430-4488

춘천성시매거진에서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033-256-1260

"여러분이 성시화운동의 기수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 후원에 동참하는 단체 및 개인을 소개합니다.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진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진구 김춘화 김춘희 김향란 김현덕 김현정 김현철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김희경 노수자 문현숙 민경원 민관식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윤덕 박제자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준선 송항순 신미연 신옥자 심경하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뇌연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병일 이세희 이승희 이연화 이영숙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은경 이은준 이종상 이주영 이진주 이철호 이태우 이형식 이혜숙 임덕수 임우선 임재철 임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소희 장창순 전옥희 전천일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석호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재현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희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호 조소현 조수지 조정화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경자 차재옥 최귀숙 최선이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최호석 표복순 탁광희 하명수 한명수 한순수 한정연 함종현 허 봉 허서구 허순영 현재용 홍순복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교회

갈릴리교회 광염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나눔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명성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예수제자운동 행복재가요양기관 거두주유소 영광한의원 춘천와이신협 아가갤러리 성시무용단(1~4)

모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 신청 및 문의 033)-256-1260

〈 후원계좌 안내 〉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농협 172242-51-085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말기암환자의 남은 삶을 의미있고 평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서비스

담당자 연락처 : 033.258.9060~2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병동은?

- 말기암 환자의 암성통증 및 증상을 관리합니다.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말기암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돌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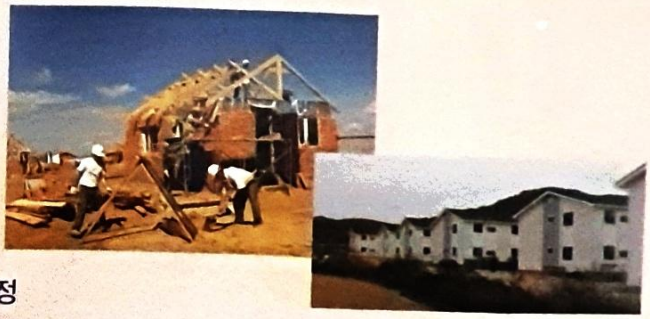
- 암성 통증, 신체적 증상 조절, 가족문제 상담 및 중재,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기념일 축하,소원들어주기), 영적상담과 종교적 돌봄, 심리적지지, 사별가족 지지모임

특별프로그램

- 다도, 미술, 원예, 스포츠마사지, 영화상영, 힐링노래방, 음악회, 가족지지모임



2015 해비타트 춘천지회 희망의 집짓기 홈파트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5년 5월 1일 – 5월 30일
2. 접수장소 :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 (가산초등학교 건너편)
3. 자격요건 : 1) 춘천 진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정
   2) 4인 가족 이상의 가정
   3) 현재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
   4) 가계 소득이 150만원(4인 가정 기준) 이상인 가정
   5) 입주 전까지 350시간 이상 건축을 위하여 협동 노동을 할 수 있는 가구 (가장 의무 시간 150시간)
4. 신청서류 : 1) 입주신청서(본회 소정양식)1부
   2) 주민등록초본1부(전 주소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1부, 호적등본1부
   3) 지방세 세목별 납입 증명서1부 (최근 3년간 : 부부)
   4)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무상 임대 시 확인 서류)
   5) 소득금액 증명원1부 (일반 직장 근무자 → 직장에서, 자영업자일 경우 → 세무서에서증명)

제20회 음악과 강연의 밤

사랑을 주세요 연극 '**유츄프라카치아**'에 이은
반드시 찾아 올 행복 뮤지컬 '**메리골드**'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죽고 싶어서 왔다 살고 싶어 나가는 힐링 뮤지컬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MUSICAL

메리골드

MARIGOLD

일시 | 2015.5.26.화요일 7시

장소 |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6시 20분 부터 선착순 입장

티켓배부/백록관, 천지관 앞

~~30,000원~~ → **무료공연**

주최: 강원대 기독교수선교회
주관: 기독교선교단체연합
공연팀: 비유 배우/ 선창용, 박선미, 김민서, 조아라, 박웅서, 김민수, 황유나
조명/ 박혜원 음향: 김규빈
강사: 김형국 목사(나들목 교회)

문의. 010-6273-2071

비유 02-3143-6620 www.beyou.co.kr